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새 봄기운이 나무마다 움이 트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곳 후쿠시마의 이와키는 뒤늦게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긴급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에 마사이 케이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작년 여름 소천하신 사토 도미코 성도님의 가족분들이(미신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후에 가족분들은 그동안 투병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네코 이쿠코 성도님의 남편과 시부모님의 유골을 사찰에서 교회의 납골당으로 옮기는 문제로

오랜기간 친정 부모님과과의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고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교회의 납골당에 옮겨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부모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놀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만끽하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에 꽃피는 생명의 계절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설 주택 호코리 카페에서의 인연으로 모리야 카츠코상과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리야상은 불교 단체의 창가학회의 모임에도 다니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제 하면서 이와키 교회의 크리스마스 와 부활절과 특별한 모임에도
참석하셨지만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년전부터 신장 투석을 하시며 홀로 지내고 계셔서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일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말에
기쁘게 생각하셨는지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부활절 예배에 오시라고 초대하였는데,
예전과 달리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고 묻자 모리야상의 집으로 가자고 하셔서

'천국 가는 길'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서 온 목적과 간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가 컸던 곳이기도미오카 지역입니다.

이시 레이코상은 쓰나미로 삶의 터전을 전부 잃어버리고

이와키시의 공영 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시 레이코상과 함께 고향인 도미오카의 가족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노환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종종 그분의 운전 기사가 되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사찰에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엔 난감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저의 집에도 초대하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와 콘서트, 목요 가정교회의 모임과 주일 예배도 오셨습니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미오카에 후타바 희망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랜기간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귀환하여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상흔이 남아 있는 지역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없는 도미오카에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자 몇해 전부터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셨습니다.

무너지고 파손되었던 집을 시간 날때마다 직접 땀 흘리며 일일이 보수하여 마침내 수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와키 교회에서도 도미오카를 방문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집집마다 전도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과 장로님께서 매주 돌아가며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한국의 선교사님이 부임하여 상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머잖아 후쿠시마[福島]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기도제목]

1. 이와키 교회의 70주년을 맞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정진하여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되도록
2.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스즈키 쓰바사상, 혼마 아이상, 타카키 히카리상, 우시로다 미노리상)
3. 교제하고 있는 아베 가호상, 이시 레이코상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믿음을 주시도록
4. 모리야 카츠코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5. 후타바 희망교회가 도미오카의 지역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6.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키에서 김미숙 올림

이와키 교회 협력 선교사 김미숙



저는 후쿠시마의 이와키 교회와 협력하며 목요 가정교회와
금요 호코리 카페 사역과 의료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1. 금요 호코리 카페 사역

처음엔 교회의 카페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카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금요 호코리 카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호코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가설 주택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던 도미오카의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와키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카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여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언젠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2. 가정 교회 사역



매주 목요일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VIP]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모든 중심이 그 날의 VIP에 맞춰집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와 감사했던 일들과
서로의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미신자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3.침구의료사역

육신의 질병 뿐만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가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금요 호코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열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2.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 주셔서 계속해서 가정교회가 확장되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